

韓國哲學史에 있어서 李退溪의 위치**

— 북한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몇 가지 논평 —

헬가 피히트 (Helga Picht)*

불행하게도 나는 스스로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변명하면서 나의 설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1. 한국철학사 연구와 관련하여 나는 완전한 초학자임을 자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주로 한국어교수, 한국근대사, 그리고 한국문학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흥미를 느껴 나는 한국의 과학적 추론의 기원에 관한 서적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철학사에 관한 서적도 연구하게 되었다. 나의 연구는 대표적인 실학자들의 사상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분야에도 사실은 초학자이다.

2. 개인적으로 나는 퇴계에 대하여 전혀 연구를 한 바가 없고, 그의 원전도 읽은 적이 없다. 이번 대회에 초청된 데 고무되어 나는 북한학자들의 한국철학사 속에 나타난 퇴계의 창조적인 저작집을 다루기 시작했다. 나는 완전한 상상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것을 남한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출간된 한국철학사 두 권을 읽었다. 유명종의 『한국철학사』(서울, 1982)와 최민홍의 『한국근대철학사』(서울, 1978)가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다른 서적은 입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나는 북한학자들의 중요한 언급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 독일 훔볼트대학 교수

** 이 논문은 1986년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그것을 위에서 언급한 남한학자들의 설명과 비교 고찰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 내 설명의 주된 목적은 나의 고찰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1979년 이후에 평양에서 출간한 전 33권으로 된 『조선전사』의 저자들은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민대중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전파한다. 노동자가 없으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역사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상 노동자가 출현함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된 노동대중은 모든 역사적인 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저자들은 역사를 노동자에 의한 사회의 물질적인 토대의 창조와 발전으로 설명한 후에 주어진 물질적 세계의 반영으로서의 모든 지적·문화적 발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새롭게 창조되는 모든 지적 가치는 그 가치들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 그들은 철학사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한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철학사를 다루는 북한학자들이 기일원론과 주기론에 대한 기술을 가장 중요시하고—그것을 유물론과 동일시하면서—대표적인 기철학자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북한학자들은 이러한 학파의 대표자들이 지난 견해가 발전하는 것을 자연과학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과학적 추론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북한학자들은 이러한 학파의 모든 대표자들을 진보주의자라고 하거나 심지어 다수인민과 다수농민의 대표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철학자들이 변증법적 추론방법과 형이상학적 추론방법을 결합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설명한다. 그들은 理一元論의 대표자는 물론, 氣一元論의 대표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철학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여건 속에서 이상주의적인 견해를 주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기일원론과 부분적인 이기이원론의 발전은 영원히 증가하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의 접근을 표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점진적인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나는 북한에서는 퇴계에 관한 연구가 철학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을 먼저 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퇴계에 관한 특별한 출판물은 북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5세기와 16세기의 전체 역사를 기술할 때 북한학자들은 퇴계에 주목하고 그의 사상에 관하여 많은 기술을 하고있다.

가장 중요한 두 권의 출판물—1960년에 출판된 『조선철학사』와 위에서 언급한 『조선전사』의 제9권(1980)—에 기초하여 나는 퇴계에 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북한학자들은 퇴계의 견해를 기술하기 위하여 남한학자들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다. 북한의 역사가들은 15세기와 16세기의 특징을 과학과 문화가 급속히 발전한 시기로 판단한다. 이 시기에 대·중·소지주들 사이의 투쟁이 초래되고 왕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과격한 개혁집단이 중소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등장했다. 왕의 중앙집권적 권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적인 투쟁과정에서 학자들 간에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철학적 추론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은 주로 주기론과 주리론에 관한 논쟁에서 나타난다.

위의 두 철학서에서는 한국 주자학의 중요한 대표자로서 퇴계 이황과 김인후를 들고 있는데 특히 퇴계는 더 깊은 철학적 사고를 진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다른 철학자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자의 사상에 대한 퇴계의 교조적인 지지로 인해 “한국의 유물론적 사고의 발전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퇴계는 비록 을사사화(1545)와 관련하여 관직에서 사퇴했지만 그는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봉건 지배세력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반동주의자였다.

다음과 같은 퇴계의 사상에 관하여 『조선철학사』는 상세히 그리고

『조선전사』는 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1. 주자학을 당연히 인식하고 모든 반주자적 이단 혹은 이론을 거부하기를 요구하는 그의 논문 “과사현정”

2. 서경덕의 기일원론과 기불멸론을 거부하며, “기”는 응결작용으로 형성된 형태가 느슨해지면 스스로 사라진다는 주장

3. “이”의 참다운 특성에 대한 이항과의 토론과 그 후에 이기양원론을 거부하고 결국 이선기후를 주장한 점

4. 왕양명의 주관적 관념론에 대한 그의 비판. 퇴계는 한국에서 왕양명의 이론을 철저히 비판한 최초의 학자로 강조된다. 퇴계는 특히 “이”를 “심”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거부하여 “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심”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본성적인 “이”는 “법칙”이고 사회적인 “이”는 “사회적 혹은 도덕적 규범(표준)”이라고 생각하여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했다. 그는 그의 이론 속에서 경험적 관념론의 요소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모든 봉건적 도덕규범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기대승과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조선전사』의 저자들은 두 사람 모두 사단을 생득적이고 불변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그들을 비판한다.

5. 그러나 북한학자들이 강조하는 퇴계에 대한 비판의 주안점은 퇴계가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어 계급간의 차이를 설명하며 또한 인간의 욕망(人慾)과 사적인 이익(私)을 모든 악의 기원으로 단정한다는 데에 있다.

6. 북한학자들은 퇴계가 만든 향약속의 사회생활에 적용된 그의 윤리관을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북한학자들은 퇴계가 봉건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의 윤리관은 매우 반동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과 남한의 서적들을 다루면서 나는 양쪽이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퇴계의 이론을 기술하는 면에서나 퇴계를 한국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남북 사이에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요컨대 북한학자들은 퇴계이론의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퇴계의 사상이 봉건사회의 발달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 열 譯)